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10

임응식 스크랩북 발취 자료집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사진사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연구를 목적으로 2009년 1월 가현문화재단에서 설립한 학술연구기관입니다.

발 행 가현문화재단  
 주 소 138-724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4 한미타워 19층  
 전 화 02-410-9123  
 팩 스 02-418-1316  
 웹사이트 <http://photomuseum.or.kr>  
 이메일 [research@photomuseum.or.kr](mailto:research@photomuseum.or.kr)

발행인 송영숙  
 기 획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편집인 최봉림, 김소희, 장정민  
 디자인 IANN  
 출력인쇄 문성  
 발행일 2015년 7월

© 2015 Korea Institute of Photography and Culture All rights reserved.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한국사진문화연구소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해당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ISSN 2093-2731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 근현대 사진사와 관련된 사진 및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된 자료는 사진문헌의 부재와 소실로 척박한 환경에 처해있는 한국사진사 연구에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 원  Hanmi Science Co., Ltd.

5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10호를 발간하며
7	『임응식 스크랩북 발췌 자료집』 해제 / 김소희
10	일러두기

연도별 스크랩북 발췌 자료

11	1930년대
27	1940년대
45	1950년대
109	1960년대
205	1970년대
279	1980년대
295	1990년대

그 외 스크랩북 발췌 자료

315	기타 임응식 이미지 자료
329	사진 관련 글 모음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10호를 발간하며

최 봉 립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소장

자료집 제9호 『임응식 스크랩북 및 녹화물 총 목록집』에 뒤이어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임응식 스크랩북 발췌 자료집』을 발간한다. 이것으로 한국 사진사에 있어서 최다 개인 아카이브 중의 하나로 남은 자료체를 2년에 걸쳐 갈무리한 셈이다. 아주 가까운 역사도 너무나 빠르게 사라지고 잊히는 한국의 현 상황에서 이 적지 않은 분량의 자료체를 온전히 정리한 것에 대해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가현문화재단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특정 기관 혹은 개인이 자료를 독점적으로 열람하면서 허접한 저작물을 그것도 가뭇에 콩 나듯이 발표하는 작금의 한국 사진사 연구 현황 속에서, 한국 사진사 연구를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을 옮겨놓았다는 보람을 느낀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역사기관, 언론사들은 최근 이전까지는 사진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료의 대상으로서 이미지보다 문자 텍스트를 선호했고, 그 결과 사진을 문헌의 방증자료 정도로만 취급해 왔다. 그러는 사이 수많은 사진 사료들이 폐기되고 방치되었고, 그 역사적 문맥, 구체적 정황을 적지 않게 잃어버렸다. 이러한 사정은 미술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진의 낮은 예술적 지위 탓에 어느 기관도 한국 사진사의 전개 상황에 주목하지 않았고, 한국 예술 사진사를 기술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사진학과 혹은 예술 관련 학과들이 한국 사진사에 관심을 쏟은 것도 아니었다. 사진학과는 그저 실기 중심 교육, 서양 사진사에 의거한 이론교육에만 신경을 썼고, 미술이론 관련 전공에서의 한국 사진사 관련 논문은 예외적이고 희귀한 예일 뿐이었다. 물론 한국 사진사 연구를 표방한 군소 기관이 생겨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열악한 연구 환경, 자료를 독점하여 연구의 독점성을 유지하려는 이기심 그리고 당파적 이해관계는 한국 사진사 정립을 위한 공동 사료편찬 작업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 사진사의 온전한 기술을 위한 자료체 발간을 차분하게 그리고 쉽 없이 계속할 것이다. 모든 자료의 개방적 공유를 통해 지지부진한 한국 사진사 연구를 진작하고 부추기는 센터가 될 것을 약속해 본다.

2015년 7월